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 1. '95년 세계교역 급신장 전망

IMF(국제통화기금)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세계 총무역량은 올해 약 7%, 내년 6%의 증가세를 보여 지난 '88~'89년이래 2년 연속 증가율로는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내년중 3.6%에 이르는 등 지난 7년만에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은 경기 확대추세가 무역 급증세의 주요 배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내년중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과 서유럽 주요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함으로써 이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의 동유럽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도 세계 경기의 호전에 기여하는 또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각국에서 관세인하와 무역자유화가 급진전되는 점도 교역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각국이 UR협정 이외에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은 지역 무역협정들 하에 무역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브라질, 폴란드, 중국을 비롯, 다수의 개도국들이 시장경제 개혁조치를 더욱 가속화, 수입시장을 대폭 개방함으로써 세계무역의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

역증가세를 유지, 올해와 내년중 수출 증가율이 각각 9%에 달하게 되고 수입 증가율은 내년중 올해보다 다소 높은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개도국중에서도 아시아지역이 중국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 성장지역으로서의 성과를 유지하고 아프리카지역의 무역은 최근 10년내 가장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공업국의 경우 내년중 수출과 수입증가율이 모두 올해보다는 다소 낮으나 5%대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 약세에 따른 대일, 대유럽 수출증가와 곡물수확 급증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도 수출 증가율이 10%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 올해와 내년도 수입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 2. 미국, 정보통신산업 급성장 전망

향후 5년간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 투자은행인 베로니스 쉐러 앤 어소시에이츠(VS&A)사는 이 회사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경기회복세에 편승, 호조를 보인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오는 '98년까지의 5년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VS&A사는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디지털

미디어, 기업정보서비스, 케이블TV, 음반, 광고 등 11개부문의 392개 미 상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98년중 이들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광고주 및 소비자의 총지출액이 3,085억 달러로 6.1%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역별로는 광고주의 지출액이 1,192억 달러, 소비자 지출액이 1,893억 달러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98년까지 향후 5년동안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총지출 증가율은 6.6%로 이전 5년간의 증가율 5.4%를 1.2% 포인트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6%의 고성장세를 보여 온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부문이 향후 5년간도 정보통신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홈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부문은 특히 '98년중 컴퓨터의 미 가정보급률이 현재의 33%에서 50%로 뛰어 오르는 데 힘입어 향후 5년간 총 1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 3. 미국 「컴」 주변기기시장 경쟁 치열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 통신기구로 꼭꼭 쓰이는 모뎀의 표준형을 내놓아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의 헤이즈(Hayes) 마이크로 컴퓨터 회사가 모뎀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파산보호를 법원에 신청, 미국의 컴퓨터 업체를 충격 속에 몰아 넣었다.

정보검색 및 통신기능으로 공전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Internet)의 필요불가결한 파트너인 모뎀은 현재 미국에서 불타나듯 팔려나가는 물건인데 모뎀 제조업체에서 최상위에 올라 있는 헤이즈는 지난 8월 이래의 부품대금 지불능력이 달려 마침내 법원보호에 매달리게끔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동업계에서나 금융계에서는 아직도 헤이즈의 재활능력을 전혀 의심하지는 않고 있지만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처지다.

헤이즈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바로 그 원인이 전혀 변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업체와 마찬가지로 모뎀분야에서도 어지러운 정도의 기술발전과 가격파괴적 출혈경쟁이 한창이다.

헤이즈는 그들의 위치를 과신, 기술개발과 가격구조 개선에 한발짝 뒤졌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했다.

미국의 모뎀업체는 연간 9억 3,000만 달러 규모로 헤이즈가 방계의 프랙티컬 페리퍼럴즈의 1억 200만 달러를 포함, 1억 7,900만 달러로 으뜸이고, 모토롤라가 1억 3,200만 달러, 유 에스 로보틱스가 1억 600만 달러, 줌 텔레포닉스가 5,400만 달러의 순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4. 미국, 대중 수출촉진 총력 태세

미행정부는 내년중 미·중 통상합동위원회를 설립, 30여건의 대중수출촉진행사를 개최하고 미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신용 공여를 확대하는 등 대중 수출지원 노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워싱턴과 상해에 미기업들의 대중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세우기로 하는 한편 미수출입은행의 북경지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프리 가든 미상무차관은 3월 미상공회의소의 대중 수출전략회의에 참석, 행한 연설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출시장으로 간주, 내년부터 중국에 대한 미기업의 수출을 대폭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든차관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중국의 경제 잠재력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서 본적이 없으며 이제 막 이에 착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추진될 대중 수출촉진 전략에는 양국 정부간 기구인 미중통상합동위원회의 설립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봄 첫회의를 갖게 될 이 합동위원회의 주관으로 내년중 무역사절단 교역촉진관련 세미나·회의의 개최를 포함해 약 30건에 달하는 무역촉진 행사가 대거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든차관은 이같은 무역촉진행사중 대부분의 행사는 그 업종에 있어 전력, 통신, 수송부문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부문의 경우 금세기말까지 전세계에서 중국만큼 좋은 시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부문에 대한 중국의 총수요는 연간 500억 달러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든차관은 이와 관련, 중국은 오는 2000년까지 중국전역에 걸쳐 1억 회선에 달하는 전화회선을 신규설치하고 총발전 능력을 연간 1만 7,000 메가와트씩 늘려나가며 100여개 공항의 신설 및 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 브라질, 신시장 수출 지원 대폭강화

브라질 정부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 신시장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해 115개에 달하는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저리용자 등 대대적인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177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수출촉진 지원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어 이번 조치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은 총292개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아일톤 바르셀로스 브라질 상공부장관은 이번에 수출촉진 지원대상품목으로 추가선정된 115개 품목은 가구, 각종용품, 전자제품부문 등에서 특히 수출확대 잠재력이 높은 품목들이라고 밝혔다.

바르셀로스장관은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 하에 이들 품목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

하지 않도록 저리용자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의 금리수준은 월간베이스로 약 4% 수준이다.

바르셀로스장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 7월 1일 도입된 신화폐인 레알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됨에 따라 수출시장의 상실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정부 및 업계는 레알화 과대평가에 따른 수출위축으로 올해 자국의 무역흑자폭이 당초 전망치인 124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우려해 왔다.

브라질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레알화는 달러화에 대해 30% 이상 과대평가돼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이로 인해 브라질의 수출업체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르셀로스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품목과 같은 일부 수출품목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잠재력이 높은 점을 감안, 레알화의 과대평가로 인한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저리용자와 같은 지원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 하에 수출집약적인 산업과 신시장에 대한 수출산업이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저리용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문들이 집중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셀로스장관은 브라질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전통적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6. 캐나다, 중국과 대규모 통신합작 체결

캐나다의 통신업체인 노던 텔레콤이 중국과 통신합작 계약을 대거 체결, 중국의 전화·통신부문에 대한 주요 공급업체로 부상하게 됐다.

지난 '93년 6월이래 대중국 진출계획을 적

극 추진해 온 노던 텔레콤은 중국측과 전화교환장비, 무선전화, 반도체칩 생산 등 첨단통신 분야에 대한 4건의 대대적인 합작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노던 텔레콤은 또한 중국으로부터 약 2억6천만달러의 전화교환장비, 데이터 패킷 네트워크, SDH 트랜스미션 시스템, 기타 첨단통신 장비 등에 대한 공급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게 될 대중국투자 프로젝트의 제1단계를 이번에 완료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중국현지 고용자 수는 현재의 약 1,000명 수준에서 앞으로 3년간 약 4,000명선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단계 사업에 포함된 4개의 주요 프로젝트중 첫번째 프로젝트는 첨단 전화교환기 합작업체의 설립건으로서 중국측 합작파트너들과 광둥호텔 텔레코뮤니케이션즈 스위칭 이큅먼트사의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광둥성 순떠에 소재한 이 합작회사는 DMS 수퍼노드계열 전화교환장비를 설계, 제조, 판매하게 된다.

이 합작회사에 대해 노던 텔레콤 측은 40%의 지분을 갖게 되고 광둥성우전국, 중국화신우전경제개발센터 등 7개 파트너가 나머지 60%를 차지하게 된다.

신설합작사는 최초 단계에서는 연간 2백만 회선에 상당하는 교환장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약 2천명을 신규고용할 예정이다.

노던 텔레콤사는 또 두번째 프로젝트는 반도체칩 생산 합작업체의 설립으로 이에 대한 합작계약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사로 명명된 이 합작사는 상해에서 VLSI(초대규모집적회로) 칩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노던 텔레콤사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동남아 현지법인, 상해 제7 라디오 공장 등 4개사가 나머지 지분을 차지하

게 될 이 합작사는 연간 20만개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

세번째 프로젝트는 역시 상해에 설립될 IC(집적회로) 제조·공급사인 상해 호텔 세미컨덕터사로 상해 IC 디자인사, 상해 지우시사 등이 합작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 7. 일본, '토털 시스템' 계속 추진

일본에서 오피스용 컴퓨터 업계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각 메이커들이 오피스 서버 내지는 비즈니스 서버 등과 같은 새로운 다운사이징 기기와 오픈화 전략으로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일본의 전파신문이 보도했다.

풍부한 응용프로그램들을 기초로 오피스 컴퓨터업계의 강점이랄수 있는 토털 시스템 납품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퍼스널 컴퓨터(PC)와 PC 랜 사이의 접속 등을 도모해가고 있다. 아울러 유닉스 컴퓨터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CSS)의 구축을 제안하는 등 자신들의 입지를 폭넓게 넓혀 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밀착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지쓰는 지난 6월 클라이언트 서버 추진본부를 신설했다. 다양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 후지쓰측의 추진본부 신설목적이다. 비즈니스 서버인 K6000 시리즈 유저에 대한 영업전개 활동은 △K 시리즈의 계속사용과 레벨업을 지원하고 △PC-LAN의 사업을 확장하며 △유닉스 계열의 비즈니스 서버인 DS/90 시리즈를 도입하는 등 세가지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들 세가지 방향을 기본으로 다양한 수요변화에 응한다는 전략이다.

이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랜드와 후지쓰 플라자를 후지쓰 어플리케이션 플라자로 통합,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의 효과와 메리트를 유저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NEC는 오피스 서버(OSV) 시스템 7200

시리즈를 오피스 정보시스템 사업을 위한 주력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한편 윈도우 탑재와 PC와 연결을 강화하면서 오픈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시판중인 PC용 소프트웨어를 사용, OSV의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OSV)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오피스 프로세서 OS(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와 네트웨어, 유닉스 3개의 OS를 탑재할 수 있는 OP-X 시리즈, 특히 PC-9800과 잘 어울리는 OP-98 등 OSV 계열의 제품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이로써 OSV의 신뢰성과 운용상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쓰비시 전기는 오피스 서버 Melcom 80에서 축적된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기술과 Apricot 클라이언트 서버 분야에서 축적된 오피스 시스템 구축기술을 융합, 미쓰비시 정보 시스템인 '솔루션 서버 RX7000 시리즈' 4개 기종 8개 모델을 지난 7월부터 판매개시했다.

## 8. 일본, 하이비전기기 개발·상품화 활기

11월 25일부터 일본에서 하이비전 실용화를 위한 시험방송이 시작됨에 따라 각 메이커들이 하이비전 관련 기기의 개발 및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일본의 전파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이 98년 나가노(長野) 동계 올림픽에서 하이비전의 본격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전에 개최되는 예비대회까지 하이비전 방송 시스템을 확립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각 기기 메이커들도 하이비전 기기의 개발과 상품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카메라·VCR 등을 비롯, NTSC 방식과의 다운·업 컨버터 등 하이비전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도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는 와이드 TV 수상기에 일대 붐이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TV 화면의 와이드화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NTSC 방식과 호환될 수 있는 EDTV-11 방송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충실도라는 면에서 고

화질(HD) TV와 하이비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방송 디지털화의 흐름은 있지만 당분간 실용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HDTV를 실용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하이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 NHK측은 "새로운 방송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 라면서 그 대표적인 경우로 올림픽을 들고 있다. 토론토 올림픽, 나가노 올림픽에서 비약적인 보급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응, 일본의 각 TV 메이커들도 하이비전 시대에 맞는 경영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하이비전 수상기의 저가격화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도 점차 갖추어지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하이비전 방송은 어디까지나 실용화 시험방송에 불과한 것으로 장차 NHK뿐만 아니라 민방들도 참여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EDTV-11의 제작용으로 하이비전 기자재를 사용, 이를 다운로드 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하이비전과 관련한 카메라 제품의 개발·상품화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소니가 HDC-500 모델의 하이비전용 카메라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200만 화면소자의 CCD를 사용, F·8, 2천룩스를 달성한 제품이다. 지상통신기는 NHK와 공동으로 3분의 1인치 4CCD 초소형 하이비전 카메라 HDL-70A를 개발했다. 히타치(日立)전자도 스튜디오용과 포터블 제품을 각각 개발했다.

## 9. 일본, 멀티미디어 단말기 가정용 공동개발

일본의 마쓰시타(松下) 전기산업과 미국의 IBM이 컴퓨터와 가전을 결합시킨 멀티미디어 관련분야에서 제휴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통신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면서

영상과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를 재생·수신할 수 있고 홈 쇼핑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가정용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공동개발하게 된다. 양사는 공동개발한 단말기를 빠르면 1, 2년 내에 상품화하기로 기본합의, 조만간 정식 제휴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마쓰시타는 IBM의 최신기술에 기초한 차세대 PC 개발을 검토중에 있어 머잖은 장래에 휴대용 단말기 등의 상품화에도 양사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 및 가전분야에서 각각 세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양사의 제휴로 멀티미디어 분야를 둘러싼 상호보완적 성격의 기업제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핵심부품으로는 IBM 등이 보급을 추진중에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MPU) '파워 PC'를 채택, 64비트급의 처리능력을 자랑하게 된다.

애니메이션 등의 동화상과 음성에 실감을 갖게 하는 외에 통신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는 비디오 온 디맨드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 여러 상품을 화면상에 호출, 선택할 수 있는 홈 बैं킹 등 개발에는 마쓰시타, IBM 외에 멀티미디어 규격 개발업체인 미국의 3DO사와 모토롤러도 참여한다.

마쓰시타와 IBM은 새로운 단말기를 퍼스널 컴퓨터(PC)보다 싼 가격에 가정 전용기로 개발한다. 마쓰시타는 이미 판매단계에 접어든 가정용 게임기인 리얼과 호환성을 가진 제품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마쓰시타는 특히 파워 PC를 탑재한 고성능 PC의 상품화를 검토하고 있다. 소형·경량이면서도 이동이 간편, 멀티미디어 주력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도 이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IBM 역시 자사의 파워 PC가 탑재된 PC를 빠르면 내년 중 시장투입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마쓰시타는 향후 시장동향을 봐가면서 상품화시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파워 PC는 MPU 최대 메이커인 미국 인텔사에 대항하기 위해 IBM, 애플 컴퓨터, 모토롤라 3사가 동등개발한 제품이다. 마쓰시타측은 파워 PC가 세계적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워 PC를 탑재, 멀티미디어 관련 상품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구상이다.

지금까지 일본 IBM은 마쓰시타에 자사의 PC 생산 일부를 위탁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 IBM의 생산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양사의 OEM 거래관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 10. 증설 메모리 대미수출 주력

일본의 퍼스컴주변기기 메이커들이 증설메모리의 대미수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퍼스컴팩 등을 중심으로 기획·개발하고 있는 엘레컴사는 최근 미국내 자회사를 통해 판매에 착수했다.

증설메모리의 선두기업인 아이오 데이터기도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견본시에 최초로 참가, 미국진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각사는 저가격경쟁으로 순익을 내기 어렵게 되자 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출하를 늘려 생산단가를 내려 순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엘레컴이 수출하는 것은 Simm으로 불리는 증설메모리로 판매자회사인 엘레컴 컴퓨터 프로덕츠(로스앤젤레스시)로부터 미국의 도매업자에게 출하한다. 수출에 의한 생산량증가로 현재의 미국제품보다 10%정도 싼 소매가격을 더욱 인하한다는 것이 동사의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의 시험적으로 1억엔 정도를 수출하고 그 후 본격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사는 유력 반도체메이커로부터 Simm의 원료인 Dram의 공급쿼터를 확보해 놓고 있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상태이다. 미국내 자회사의 인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오 데이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컴퓨터관련 견본시 '컴덱스'에 최초로 참가한

것을 계기로 지명도를 향상시켜 수출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편 메모리메이커의 선두기업인 메르코도 수출확대에 나서고 있다. 동사는 자회사인 버펄로 프로덕츠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본국내의 수요가 왕성해 공급이 달리고 있으나 증산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미국의 증설메모리시장은 일본의 5배이상의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료인 Dram의 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이 일본보다 10%정도 비싼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각사는 대미수출을 확대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11. 중국, 「컴」 산업 고속성장 지속

중국의 컴퓨터 산업이 내년에도 호황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컴퓨터시장 규모는 내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들의 시장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전자공업부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정보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가 컴퓨터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몇년간 빠른 속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전기통신산업도 컴퓨터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5년중 중국 컴퓨터산업의 매출규모는 올해보다 40%나 증가한 55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품목별로는 퍼스널 컴퓨터(PC)가 시장을 주도, 내년도 판매량은 100만대를 넘어서고 판매액도 올해보다 40% 늘어난 1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별로 486급 모델은 전체 판매량의 55%를 차지, 주력기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이며 386급

과 586급 모델의 판매비중은 각각 40%, 5~8%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같은 판매열기에 힘입어 95년중 중국의 PC 보유대수는 210만대로 인구 1천명당 1.9대의 PC를 보유하게 된다.

중국의 PC 판매량은 내년도 세계 전체 PC 판매의 1.6%, PC 보유대수는 세계 전체 보유량의 1.0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PC외에 미니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의 판매 실적은 1만2천대, 2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부문의 매출증대가 이들 제품의 판매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95년중 중국의 컴퓨터 관련제품 수출실적은 25억 달러, 수입실적은 4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부문별로 경제개혁 정책과 정보산업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내년도에는 금융, 보험, 관세, 대외무역, 전력산업 등의 미니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 12. 중국, 가전제품시장 규모확대

중국의 가전제품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가전제품 생산 및 판매, 수출이 전반적인 호조를 나타냈다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가전제품협의회 자료를 인용,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중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다리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기 쿠키 등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 제품의 품질수준도 향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내시장에서의 판매호조는 수출확대로 이

어저 가전제품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전제품협회 발표에 따르는 1~9월 기간중 가전제품 수출실적은 10억 8,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전체실적인 13억 5,000만 달러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에어컨디셔너의 수출확대가 두드러져 상반기중 에어컨디셔너의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만대나 증가한 15만 6,000대를 기록했다.

에어컨디셔너의 수출증가는 국내업체들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몇년전까지 중국산 에어컨디셔너의 내수판매는 수입산에 밀려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에도 10만대의 외국산 에어컨디셔너가 수입, 국내제품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응, 20개의 주요 그룹을 포함한 100여개의 중국 에어컨디셔너 메이커들은 품질향상을 통해 외국산 제품과 시장경쟁을 벌였으며 이같은 노력이 내수판매 및 수출호조로 연결되고 있다.

전자제품협회의 장평부회장은 업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내년에는 중국산 에어컨디셔너 브랜드가 국내시장에서 외국산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등 다른 가전제품시장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 앞으로 몇년내에 중국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어컨디셔너를 제외한 다른 가전제품의 생산실적도 증가세를 보여 1~9월 기간중 세탁기 생산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7.2% 늘어난 820만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실적은 1천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중 냉장고는 23% 늘어난 616만대의 생산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 전체실적은 8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과 진공청소기 등의 부문에서는 외국산 제품이 여전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 대만, 하반기 수출호조

올 하반기들어 대만의 수출실적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10월중 대만의 수출계약 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4% 늘어난 8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경제부가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9월의 수출실적 84억 3,000만 달러보다 0.24% 줄어든 것이지만 7월과 8월의 77억 달러, 78억 달러보다는 5%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출호조에 대해 경제부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회복과 연말을 앞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수출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10월중 대만의 지역별 수출실적은 전반적인 호조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계약 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75% 증가한 25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홍콩과 유럽에 대해서도 각각 19.5%, 6.3% 늘어난 16억 2,000만 달러, 12억 7,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대일 수출은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힘입어 20.7% 증가한 9,800만 달러를 기록, 주요 교역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섬유류의 수출계약 실적은 11억 4,000만 달러를 기록, 최대 수출품목의 지위를 고수했으며 그 뒤를 이어 전자제품과 정보 및 전기통신장비의 수출은 각각 10억 3,000만 달러, 1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